

News & Issue

뉴스와 쟁점

볼리비아 고속도로, 원주민을 가르다

박수경

에보 모랄레스의 ‘성공적’ 근대화 기획

지난 8월 13일 볼리비아의 ‘원주민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베니(Beni)주와 코차밤바(Cochabamba)주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의 가능성을 열었다. 서쪽의 안데스 고산지대와 동쪽의 아마존 지역으로 나뉘는 볼리비아의 지형을 고려한다면 두 지역을 바로 잇는 도로망 구축은 국가의 통합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일찍이 진행해야 했을지 모른다.

볼리비아 9개 주 가운데 2번째로 넓은 베니주는 인구 순위로는 꼴찌를 겨우 면한 8위이다. 영토 대부분이 아마존 지역에 속하여 평원과 밀림으로 이루어진 베니주에는 주도인 트리니다드(Trinidad)를 제외하고는 규모를 갖춘 도시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베니주의 면적이 대한민국의 2배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볼리비아 내에서 베니주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라파스에서 트리니다드로 가는 방법은 산타크루스를 경유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비포장 국도를 몇 군데 거쳐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는 방법뿐이다. 어느 쪽을 이용하든 직선거리로 400km 떨어진 라파스와 트리니다드 사이는 육로로 15-20시간이 소요된다. 사실상 트리니다드로 향하는 고속버스는 산타크루스에서만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트리니다드의 교통여건은 행정수도와의 접근성 문제만이 아니라 볼리비아의 서쪽 안데스와 동쪽 아마존이 여러모로 결합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번 고속도로 신설은 도로망 확충을 통해 베니주를 정치경제적으로 국가에 통합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안데스 권역과 아마존 권역은 연결된다. 에보 모랄레스는 진정 국



볼리비아의 지형적 특징 (출처: <https://sites.google.com/>)

가적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10년 간 모랄레스 정부가 달성한 업적을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이제는 국가통합과 국가적 발전을 위해 박차고 나갈 절호의 타이밍을 만들어낸 듯 보인다. 지난 10년간의 통치로 그동안 볼리비아를 짓누르고 있었던 경제파탄과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완화되었고, 이제는 하나의 국가로서 발전을 도모할 때가 되었다.

2006년 이후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주요 산업 부문에 대한 국가개입을 강화하고 복지예산을 늘린 결과, 볼리비아의 거시경제지표를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선회시켰다. 거시경제지표의 변화가 반드시 더 나은 살림살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볼리비아의 경우는 달랐다. 모랄레스 집권 시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100%이상 상승하여 노동자의 실질적 임금증가가 이루어졌으며, 건설경기의 호황은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데 큰 몫을 담당했다. 지역에 따라 20%까지 감소한 빈곤율은 모랄레스 정부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요소였다.

이 모든 성과의 이면에 수치화 되지 않는 볼리비아 사회의 가장 급진적 변화가 있었다. ‘원주민 대통령’으로 당선된 모랄레스가 백인=부유, 원주민=빈곤의 항등식을 방정식으로 바꾼 것이다. 그 결과 2009년과 2014년 대선에서 그는 60% 이상의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원주민을 볼리비아의 보편적 주체로 내세우고, 보편적 주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삼선에 성공한 모랄레스는 이제 보편적 국가 발전과 통합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내딛고 있다. 그러나 그 행보 속에서 베니주로 가는 관문인 ‘이시보로세쿠레 국립공원과 원주민 영토’(TIPNIS: Territorio



베니주와 코차밤바주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계획 (출처: <http://www.dw.com>)

indígena y Parque Nacional Isiboro-Sécure)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모랄레스가 선택한 국가 발전과 통합의 방식은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했다.

TIPNIS: 원주민의 근대화 또는 탈식민적 원주민 기획의 수호

TIPNIS는 베니주와 코차밤바주 사이에 위치한 면적12,363km²의 보호지역이다.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것보다 넓은 이 지역은 코차밤바주에 속하는 안데스 한 자락과 베니주에 속하는 이시보로 강과 세쿠레 강 유역을 아우르고 있다. 덕분에 생물학적 다양성은 물론이고 대규모 담수 유역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환경과 어울려 살아가는 68개의 원주민 공동체가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이 지역은 1965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90년 ‘원주민 영토’(Territorio indígena)로 선포되었다. 모랄레스는 2기 정부 때인 2011년 TIPNIS를 가로질러 베니주와 코차밤바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밝혔다. 브라질 국영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출자를 약속받았으나 TIPNIS 지역 원주민을 비롯하여 사회적 반발에 부딪힌 모랄레스는 이 지

역의 불가침성(intangibilidad)을 보장하는 180호 법을 공포하며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철회했다.

1990년 원주민 영토의 선언과 2011년 180호 법 제정은 원주민 투쟁의 결실이었다. 1990년 트리니다드에서 출발한 1차 원주민 행진은 삼림과 공유지



이시보로세쿠레 국립공원과 원주민 영토 지역
(출처: <http://www.periodicolaregion.com>)

권리를 요구하며 34일 만에 라파스에 당도했다. 원주민으로서 정치무대 전면에 나선 이 사건을 계기로 볼리비아는 다민족 국가임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모랄레스의 집권은 그러한 운동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2011년 모랄레스 정부를 향해 8차 원주민 행진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트리니다드에서 라파스를 향한 65일에 걸친 행진이었다. 3개월에 걸친 투쟁 끝에 TIPNIS는 불가침성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지난 8월 13일 모랄레스가 공포한 ‘TPNIS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종합발전을 위한 266호 법’(Ley 266 Protección, desarrollo integral y sustentable del TIPNIS)은 이 지역의 불가침성을 폐기함으로써 우선 비야투나리(Villa Tunari)와 산 이그나시오 데 모소스(San Ignacio de Moxos) 사이의 고속도로 건설을 확정지었다. 그리고 일각에서 지적하듯 장기적으로 아마존 지역의 석유자원 개발로 향하는 문을 열었으며, 고속도로 건설에 출자한 브라질은 오랫동안 닫혀있었던 태평양으로 향하는 문의 빗장을 벗겨냈다.

그리고 266호 법은 또 다른 문을 열어젖혔다. 모랄레스의 업적 덕분에 백인/원주민의 이분법에 균열이 생긴 만큼 원주민 역시 언제까지나 같은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복합적인 집단과 개인이라는 당연한 현실 인식을 향한 문이다. 아마존강 지류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원주민, 땅과 인간의 연속성을 사고하는 원주민, 코카재배원주민, 코차밤바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2011년 고속도로건설 반대를 위한 원주민 행진 (출처: <http://www.la-razon.com>)

원주민 그리고 볼리비아를 근대화시키고 더 나은 볼리비아를 약속한 원주민 대통령, 그들 모두가 볼리비아 원주민이다.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근본적인 비판은 개발 중심의 근대화 기획이 아마존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 결과, 아마존 생태계와 긴밀히 접합되어 있는 원주민의 생활터전이 상실되리라는 것이다. TIPNIS를 희생양으로 삼은 모랄레스의 국가발전계획은 볼리비아에서 오랫동안 목격해 온 식민주의 국가의 재출현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고속도로 건설이 모랄레스가 약속하는 것처럼 베니주의 발전과 빈곤을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새로 생길 고속도로가 브라질 내륙과 연결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코차밤바 소재 대기업의 배만 볼릴 것이며, 모랄레스의 지지기반인 코카재배업자가 아마존 밀림을 코카재배지로 뒤바꿀 것이라는 불길한 미래를 내다본다.

지난 8월 13일 트리니다드에서 에보 모랄레스는 266호 법을 공표하면서 68개 원주민공동체 가운데 58개가 고속도로 건설에 찬성했으며, 고속도로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원주민의 발전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모랄레스는 원주민이라는 정치적 프레임



2017년 8월 266호 법 제정 반대 시위 (출처:<http://www.paginasiete.bo>)

을 전유하고자 하며, 그 프레임은 더이상 1990년에 그랬듯 대지의 색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 모랄레스는 백인=근대화, 원주민=탈식민적 기획이라는 항등식 역시 해체하고 있다.

모랄레스 정부는 생태계파괴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는 자원 채취에 의지하여 거시경제지표를 유지 및 개선하는 한편, 원주민이라는 보편적 주체의 자리를 꺾참으로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TIPNIS의 불가침성을 해제시킴으로써 모랄레스 정부의 속성 역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이룩한 근대화 기획의 수혜자를 원주민으로 동일시하고, 자신의 정부 역시 원주민과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TIPNIS의 다른 원주민을 모랄레스 정부는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향후 볼리비아의 향방을 짐작하는 데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박수경 — 고려대학교 시간강사